

“최적의 훈련 환경...韓 골프 이끌 인재 양성”

함평골프고-웨스트오션CC 업무협약 골프장 개방 등 지원...전문 교육 실시 이천호 교장 “세계 누빌 선수 육성 최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량을 갈고닦아 한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남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이 푸른 필드 위에서 마음껏 스윙하며 세계적인 선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

7일 함평골프고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영광웨스트오션컨트리클럽(웨스트오션CC)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인재 육성 및 훈련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함평골프고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골프고등학교는 최근 영광웨스트오션컨트리클럽(CC)에서 웨스트오션CC와 지역 골프 유망주 발굴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골프인재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골프고등학교 제공>

골프 종목 특성상 직접 잔디를 밟으며 실전 라운딩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 신분으로 정규 코스를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 같은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영광웨스트오션컨트리클럽이 후원자로 나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환경 조성 및 학생 선수들의 실전 코스 이용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순히 훈련 장소를 내주는 것을 넘어, 골프 관련 대회 및 행사 운영을 돕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등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필드에서 풍부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 골프 산업계가 함께 호흡하며 동반 성장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경 웨스트오션CC 대표는 “훈련 장소 제공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하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해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천호 함평골프고 교장은 “이번 뜻깊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세계 무대를 누빌 골프 인재 양성의 토대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허학선 목포광역시해상교통관제센터장 취임



제4대 목포광역시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허학선(사진) 시기가 취임했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취임한 허 신임 센터장은 포항·완도·부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본청 해상교통관제과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해상교통관제 분야 전문가다.

허학선 센터장은 “해상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정보 제공으로 사고를 사전에 막고, 현장 중심의 관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해상풍력단지 확대와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구례경찰·구례여중, 교내 불법카메라 점검

구례경찰서는 7일 “교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구례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교내 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내 성폭력 및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은 구례여중 학생들로 구성된 자체 동아리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시설 환경 전반을 확인했다.

정덕교 경찰서장은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위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기자



담양경찰, 대나무축제서 실종·범죄예방 홍보

담양경찰서는 “최근 열린 담양 대나무축제 현장에서 참여형 범죄예방 홍보 활동인 ‘담벼락(樂)’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홍보와 함께 미아 방지를 위한 아동 지문 사전 등록 안내가 이뤄졌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이번 홍보 부스 운영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여수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 ‘현장 컨설팅’

여수경찰서가 전남경찰청, 여수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7일 여수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컨설팅은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맞춤형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기자



동구자원봉사센터, 가정의 달 봉사 활동 ‘다채’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7일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어버이날(6월8일)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계림2동·충장동 자원봉사캠프는 각각 홀로 사는 어르신 20세대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꽃나무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직접 화분에 꽃나무를 심으며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학운동 자원봉사캠프는 취약계층 20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돌봄 활동을 펼쳤고, 서남동 자원봉사캠프는 지역 아동들에게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세대 간 공감과 나눔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5·18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의

미를 되짚으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헌신하겠다”며 “세무 전문가로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지역인재 현장 체험 활동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7일 “전날부터 이틀간 직업계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학생 45명을 초청해 정비단 현장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철도공사가 2020년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철도 분야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철도공사와 정비단 소개 ▲정비동 견학 ▲신규 입사 직원들의 취업 스토리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철도차량 정비 현장을 둘러보며 열차 한 대가 운행되기까지 필요한 각종 직무를 직접 접하고 현장 직원들의 입사 준비 과정, 회사 생활, 철도 분야 직무



등을 배우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체험했다.

이재욱 호남철도차량정비단장은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철도 분야를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도, 어버이날 맞이 ‘찾아가는 버스 삼총사 행사’

전남도는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나주 봉황면 신석마을에서 ‘찾아가는 전남 버스 삼총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 건강과 생활, 마음까지 돌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기초검진을 비롯해 갈갈이, 아·미용, 네일아트 등 복지서비스와 치과·한방진료, 스트레칭 검사 등 보건·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이 곧 전남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동강대 학군단,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 초청 음악회

동강대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 봄맞이 음악회를 열어 재학생과 지역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7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학군단은 최근 보건관 앞 운동장에서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동강대 학군단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를 홍보하고 12·13기 후보생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는 뮤지컬을 비롯해 대중가요,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관객 참여형 무대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강전익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의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멋진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창설된 동강대 학군단 RNTC는 2024년 8기 18명, 지난해 9기 10명에 이어 올해 10기까지 모든 후보생을 100% 임관시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관 전 종합평가에서 전원이 합격하는 등 학군단 운영 대학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학군단임을 입증했다.

/박선욱기자

광주노동청 ‘노동절 정부포상 전수식’ 성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전날 ‘2026년 노동절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지역 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광주·전남 북·제주 지역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총 24명으로 ▲철탑 훈장 이치환(전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노동조합)씨 ▲대통령 표창 김영성(LS엠트론㈜)씨 등 5명 ▲국무총리 표창 채일석(뉴핵심공업사)씨 등 10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손준원(유한회사 승운산업)씨 등 7명 ▲산업재해 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임



신호(뉴포도나무요양병원)씨가 수상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모든 분께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